

2024년 1월 엘에이 교회 아침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갈망이 새로워지고, 강화되는 것 입니다.

제공되는 자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모두가 성경읽기, 사역 책자 읽기의 스케줄을 세우기를 격려합니다. 이 부담을 수행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8일부터 엘에이 교회는 '창세기'를 우리의 아침부흥 재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기 위한 추천 자료들

- 한글회복역 온라인 본문 읽기(http://rv.or.kr/read_recovery.php)
- 라이프스타디 방송과 읽기(<http://www.btmk.org/lifestudy>)
- 한국복음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eagospelbookroom6931>)
- 한국복음서원 연회원(<https://www.kgbr.co.kr/members>)
- 최고봉의 성경진리(<https://highpeaktruth.org>)
- 성경찬송 앱 구입(https://mall.kgbr.co.kr/goods_view.php?gs_type=B&gs_idx=2679)

영어 자료들

- Holy Bible Recovery Version with footnotes (available in print from livingstream.com, as an app in the App store and Google Play, and for digital readers such as iBooks and Kindle)
- Ministrybooks.org
- 500Lifestudies.org
- Lsmradio.com
- Emanna.com
- Podcasts, videos, and blogs at Biblesforamerica.org
- Youtube.com/LivingStreamMinistry
- Lsmwebcast.com

1월 1일 월요일

요 1:1, 4, 14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12 [2]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이고 설명이며 표현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정의되시고 설명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3]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한다.

요 1:4 [1] 1장 3절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하므로, 여기의 '생명'은 틀림없이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로 상징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를 언급하는 사실로 입증된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은 생명이시며(요 11:25, 14:6),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요 10:10하). 1장 전체가 요한복음의 서문이다. 1장은 생명으로 시작해서(요 1:4) 건축(요 1:42, 51), 즉 하나님의 집으로 끝난다(참조 요 1장 각주 42, 각주 51, 각주 51). 그러므로 1장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이다.

요1:14 [1]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시는 것이다.

[2] 로마서 8장 3절은 비록 이 육체가 죄의 육체였지만, 죄의 육체의 모양만 있었을 뿐 육체의 죄는 없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육체가 되신 분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곧 완전하신 삼일 하나님이셨다(요 1:1).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죄 있는 사람과 하나 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으셨을 뿐 죄 있는 사람의 죄는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사람,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하신 사람으로서 두 본성, 곧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셨다. 그분의 두 본성이 연합되어 하나님-사람을 산출했지만, 그 두 본성의 개별적인 특성은 여전히 구별되며, 그 두 본성이 혼합되어 제삼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었고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는데, 여기에 은혜(사람이 누린 하나님)와 실재(사람이 얻은 하나님)가 충만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그들의 생명으로 얻고 누릴 수 있었다.

[4]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실재(實在)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실재화(實在化)되신 하나님이다. '실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5장 33절, 8장 32절, 17장 17절과 19절에 있는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와 같다.

…주님은 매우 비밀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그분을 결코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보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육십 육 권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이 육십 육 권을 단어 하나하나 읽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단어들에 우리의 비밀스런 주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며, 또 말씀을 대하는 방법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알맞은 때에 살아 있는 말씀들을 주신다. 내적인 레마는 언제나 외적인 로고스와 부합된다. 속에서 레마를 말씀하시는 그 영께서는 결코 기록된 로고스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외적인 로고스와 내적인 레마는 항상 서로 일치되며, 많은 경우 내적인 레마가 외적인 로고스를 해석해 준다. 가령 당신이 오늘 아침에 기록된 로고스를 읽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거나 살아 있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실패했다 하자. 당신이 근무하는 동안에 그 영께서는 속으로부터 당신을 그 말씀으로 기름 바르시며 당신에게 올바른 의미와 올바른 중점을 제시해 주신다. 당신은 그 영으로 인해 생생한 중점을 가진 살아 있는 레마를 느끼게 된다. 그 결과로 당신은 생각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당신의 영 안에서도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 외적인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영 속에서 살아 있는 말씀이 된다. 당신은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 당신의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로고스가 레마로 된다. 즉 외적인 말씀이 내적인 말씀이 된다. 우리는 속의 살아 있는 레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최대한의 길을 갖도록 허락해야 한다. 살아 있는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자유로운 통로를 갖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바꿔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현재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 있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내적인 레마에 집중함으로써 살아 있는 주님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시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매우 유용(有用)하고도 실제적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움직임과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 1:1절 각주 2-5번; 4절 각주 1-2번; 14절 각주 1-2, 4번,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4번, 소제목 “5. 아들의 즉각적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함” (영문판 409-413쪽)

빛 비춤과 적용 :

1월 2일 화요일

벧전 1:22하-23, 25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벧전 2:2-3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벧전 1:23 [2] 씨는 생명을 담고 있다.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하는 것은 바로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벧전 2:2 [1] 믿는 이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태어나(벧전 1:3, 23) 아기들이 되고, 영적인 젖으로 양육받음으로써 생명이 자라 더 전진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5] 즉, ...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가져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이 자란 결과를 가리키는 것인지, 초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는 거듭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거쳐 영광스럽게 되는 것(롬8:30)에 이르는 긴 과정이 있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 초기의 구원을 받았다(참조 벧전 1장 각주 52). 그런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젖, 곧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서 완전한 구원, 곧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혼의 구원이 될 것이며, 이 혼의 구원은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벧전 1:5과 각주 52, 1:9-10, 13).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는 직접적으로 2장 5절에 있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와 2장 9절에 있는 ‘그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를 가리킨다.

2 절의 「순전한」은 「섞인 것이 없는」이라는 뜻이 아니며, 순수하지 않은 가르침과 반대된다. 오히려 「순전한」은 1절에 있는 궤홀과 반대된다. 궤홀이 없는 젖은 악한 목적이 없고 혼을 양육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젖이다.

... 만일 당신이 악독, 궤홀,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전혀 없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마시려는 사모함이나 갈망이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르기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마시기를 갈망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악독을 미워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가령 어떤 형제가 아주 오랫동안 일 년 이상을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자. 형제들, 특히 장로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궤함과 외식과 시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에 대해 악하게 말할 것이다. 이 악한 말의 근원은 그 형제 안에 있는 악독이다. 확실히 그런 상태에 있는 형제에게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에 대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체험에서 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형제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하자. 그는 그리스도가 속죄제와 속건제로 필요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죄들을 자백하고 이렇게 기도한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오랫동안 나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한 말을 해 왔습니다. 주여, 이것은 내 안에 죄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여,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나의 타락한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이 속죄제로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속죄제로 취하고 적용합니다. 오, 속죄제물의 피로써 나를 씻어 주소서. 주여! 형제 자매에 대한 악한 말이 죄요 불법임을 압니다. 주여, 나는 불법으로 충만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소서. 나는 당신을 속죄제뿐 아니라 속건제로 취합니다. 주여, 온종일 나는 당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 형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곧 말씀의 젖에 대한 식욕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 말씀 대하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는 교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양분 있는 것을 마시기 위해 성경을 대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는 성경을 읽을 때 순전한(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마실 것이다. 결국 이 젖은 그의 내적 존재 안에 들어가서 악독의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 형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 나는 모든 장로들을 사랑한다. 모든 성도들이 훌륭하고 그들 모두가 나보다 낫다.』

추가로 읽을 말씀: *벧전 1:23절 각주 1-2번; 25절 각주 2번; 2:2-3절 각주 전체,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번, 소제목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부터 끝까지 (영문판 126-129쪽)*

빛 비춤과 적용 :

1월 3일 수요일

요6:51상, 57, 63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 6:51 [1] ‘생명의 떡’(요 6:35)은 그 떡의 본성, 즉 생명을 가리키고, ‘살아 있는 떡’은 그 떡의 상태, 즉 살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이 시점에서 떡은 살이 된다. 떡은 식물의 생명에 속하고 오직 먹이기 위한 것이지만, 살은 동물의 생명에 속하고 먹이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구속(救贖)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주님은 생명나무이셨는데, 이것은 오직 사람을 먹이시기 위한 것이다(창 2:9).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진 후에 주님은 어린양(요 1:29)이 되셨는데, 이것은 사람을 먹이실 뿐 아니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다(출 12:4, 7-8).

요 6:54 [1] 여기서는 살과 피가 따로 언급된다. 피와 살의 분리는 죽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 즉 그분께서 죽으실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믿어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절을 6장 47절과 비교하면, 주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믿는 것(to believe)’, 또는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to believe into)’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요 1:12).

요 6:63 [1] 이 시점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언급된다. 육체가 되신 주 예수님(요 1:14)은 부활 후에, 또한 부활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언급된 것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얻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시다.

[3] 여기와 6장 6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레마’로서 즉각적인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사용됨)와는 다르다. 여기서 ‘말씀’은 ‘그 영’ 다음에 나온다. ‘그 영’은 살아 계시고 실재하시지만, 매우 비밀하시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씀은 구체적이다. 먼저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실 것임을 언급하셨다. 그 후에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주님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는다.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셨다. 그 영은 놀랍지만 너무 비밀스럽다. 우리에게는 견고하고 볼 수 있고 형체가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6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씀하신다. 말씀은 실체적이다.

.. 전체 성경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이상한 말씀은 57절이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먹으라고 권하신다.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 만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많은 동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히 그분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음으로써 산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다. 그분을 먹는 것은 영 단번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한 매일의 일이며 심지어 순간순간의 일이다.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계속해서 먹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또한 주님을 접촉해야 하며 그분을 먹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배고픈 사람들이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은 먹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떡처럼 먹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말씀이요 영이신 그분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것이며 그분을 소화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순간순간 적용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며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일을 잊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그분을 먹은 것에 의해 살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생명의 거룩한 길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 6:51, 54, 57, 63 각주 전체,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6번, 소제목 “6.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심” (영문판 200-203쪽)

빛 비춤과 적용 :

1월 4일 목요일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엡 6:17 [5] 그 영과 말씀은 그리스도이다(고후 3:17, 계 19:13).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주신다.

[6] 어떤 상황에서 그 영께서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이다. 검과 그 영과 말씀은 하나이다.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이 즉각적인 말씀이 될 때, 이 즉각적인 말씀은 그 영이며 그 영은 검으로서 원수를 죽이신다.

엡 6:18 [1]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이 영은 연합된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할 주요 기관은 이 영이다.

[2] 기도 생활을 계속하려면, 우리에게는 힘을 다해 인내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러한 기도 생활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4]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17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말한다. 하나님의 갑주에 있는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이것만이 대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검으로 우리는 대적을 산산조각 내어 버린다. 그러나 검을 먼저 쥐지 말라. 그보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허리띠와 흉배와 신을 착용하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전체가 보호되고 우리의 분깃인 구원을 갖고 난 그 때에야 성령의 검을 받을 수 있다.

17 절에서 「...인(which)」의 선행사는 검이 아니라 그 영이다. 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둘 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고후 3:17, 계 19:13). 내가 이 구절을 썼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검」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검은 그 영의 검인가 아니면 말씀의 검인가? 대부분의 독자들이 검은 말씀이며 그 영이 검을 휘두른다고 생각한다. 나도 오랫동안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했다. 나는 검을 사용하는 이는 그 영이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꿔 말해서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검은 말씀이고 검을 사용하여 대적을 죽이는 분은 그 영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것을 돕는다고 배웠다.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그 영은 검 자체이며 그 검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검이다. 검은 그 영이며 그 영은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인 셋 - 검과 그 영과 말씀 - 을 가진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주된 부담은 이 문제에 있다. 말씀은 성경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쇄된 문자들 뿐이라면 그것은 그 영도 아니며 검도 아니다. 17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 즉 어떤 상황에서 그 영이 그 순간에 말해주는 즉각적인 말씀이다. 성경의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직접적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그 영이 될 것이다. 그 영이 되는 이 「레마」는 대적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는 검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다만 그것을 문자로 된 말씀인 「로고스」로서만 가질지 모른다. 그러한 말씀은 아무 것도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구절이 우리에게 현재적이고 즉각적이며 살아 있는 말씀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가 그 영이 된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또한 여기에서 「레마」를 사용하고 있다. 즉각적이고 현재 하시는 말씀이 그 영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이 검이다. 그러므로 검과 그 영과 말씀은 하나인 셋이다. 더욱이 그 영이 아닌 우리가 대적을 죽이는데 이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 대적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책략이나 기술이나 정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그 영 - 말씀」인데, 그것이 검이다. 우리는 교활한 꾀술을 쓰지 않고 그 영의 검을 휘두른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매고, 양심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덮으며, 우리의 견고한 기초인 평안을 갖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온 우주에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안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보호되고, 구원의 투구로 지켜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대적을 베는 칼인 「레마」가 된다. 이렇게 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대적을 정복하고 패배시킬 뿐 아니라, 그를 죽이고 심지어는 산산조각 내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기 위해 것처럼 장비되고 싸우며 또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엡 6:17절 각주 5-6번 18절 각주전체,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번, 소제목 “III. 그 영의 검” (영문판 548-550쪽)

빛 비춤과 적용 :

1월 5일 금요일

살전 2:13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살전 2:13 [1] 믿는 이들은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의 근원과 기원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어서(히 4:12) 믿는 이들 안에서 운행한다.

히 4:12 [1]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 절의 첫 부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가리키듯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을 가리킨다. 그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다.

[2] 성경에 따르면 사람은 세 부분, 곧 영, 혼, 몸으로 된 존재이다(살전 5:23). 여기 4장 12절에는 관절과 골수라는 몸의 부분들과 그리고 혼과 영이 있다.

앞 절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1) 그들이 구출되었던 이집트, (2) 그들이 방향했던 광야, (3)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다. 이 세 장소에서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세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들, 곧 신약의 믿는 이들에 대한 예표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속받아 세상에서 구출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되었다. 우리의 방황은 항상 혼 안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시편 95편에 대하여 많이 말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4장 12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사고와 의도를 분별할 수 있나니』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이는(for)」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구절을 연결한다. 왜 저자는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가? 왜냐하면 시편 95편에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 있고 운동력 있으며 예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없으며 단지 흑백의 문자만을 만질 뿐이다. 흑백으로 인쇄된 문자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니며 힘을 주는 것도 아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단지 흑백의 문자를 접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접촉한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 있으며 우리의 영으로부터 혼을 분리해 낼 때 그것을 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방황하고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의해 사로잡혔으며 우리의 영 깊은 속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의 생각은 방황하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묻기를,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영적인 거인들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의 영향 아래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밤중 고요한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아오르며 이렇게 말한다. 『교회 생활은 옳은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잠을 잘 자거나 일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분별하여 무엇이 우리의 영이었으며 무엇이 우리의 혼이었는가를 계시하는 날에야 안식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신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찢러야 하며 모든 혼과 영의 혼합을 분리해야 한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종교 안에 있기란 매우 쉽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찢리고 나뉘어져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할 수 있다. 우리의 혼은 파리잡이 끈끈이처럼 끈적거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에 달라붙기란 쉬운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찢림과 분리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교회 생활 안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체험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후에도 종종 체험한다. 많은 때에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의 영은 반응했다. 그러나 우리의 혼 또한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반응을 보였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너 자신을 교회에 복종하라』 고 말하지만, 끈끈한 혼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조심해야 돼. 교회의 말을 너무 듣지 말아라. 모든 인도하는 형제들도 다른 이들처럼 실수를 한다. 모 형제를 봐라. 그는 좋지만 절대로 좋지는 않다.』 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활동할 때 우리는 즉시 방황하기 시작한다. 오직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 말씀의 찢림으로 오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구출됨을 발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살아 있고 힘을 주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인쇄된 책으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산 방식으로 취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살전 2:13* 각주; *히 4:12* 각주,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5번*, 소제목 “하나님의 사신 말씀” I-IV (영문판 269-272쪽)

빛 비춤과 적용 :

1월 6일 토요일

딤후 3:15-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딤후 3:16 [1] 혹은,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또한 ... 유익합니다. 교회가 하락할 때 죽음과 부패와 혼란에 대항하려면, 디모데후서 1장에서 기초가 되는 영원한 생명(딤후 1:1, 10)과 2장에서 강조되는 신성한 진리(딤후 2:15, 18, 25)와 3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딤후 3:14-17)이 모두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삼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한다. 신성한 진리는 썩어 없어질 것의 공허를 모든 신성한 풍성의 실재로 대치한다. 성경은 혼란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신성한 빛과 계시를 준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책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

[2] 이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6:63), 또는 호흡이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다. 그러므로 마치 인(隣)이 성냥의 본질적인 물질인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성경의 본질이며 실질이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 말씀의 그 영과 마찰시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한다. 영 하나님의 체현이신 성경(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시며(계 19:13),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마 4:4).

딤후 3:17 [1]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요 1:13, 벵후 1:4),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고전 6:17), 그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이것은 경건의 비밀,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과 일치한다(딤후 3:16).

우리는 성경을 단지 흑백 문자를 따라서가 아니라 또한 거룩한 계시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서 알아야 한다.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에베소서와 같은 책을 이해하는 데 자격을 제공한다고 생각지 말라.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을 단지 문자로만 공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를 온전히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라고 기도한 이유이다(엡 1:17-18). 우리는 50년 이상 그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에 대해 주께 감사한다. 그 결과 주의 회복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포함한다. 이 메시지들은 단지 성경의 흑백 문자를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종종 결혼식에서 목사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라 신랑과 신부에게 가르친다. 그때 목사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약속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호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에 따라 의로 교육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공자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눈으로 말씀의 몸을 접촉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의 혼을 접촉하며,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사용함을 통하여 말씀의 영을 접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성경의 어떤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또한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 신성한 호흡을 들이마실 수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매우 귀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의 제자들 또한 공자가 쓴 어떤 문구를 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에는 신성한 호흡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호흡을 담고 있다. 성경의 문자 안에는 생명을 주는 영이 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더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읽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귀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공급하고 신선케 하며 적셔줄 것이다.

... 만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한다. 말씀을 기도와 시와 찬양으로 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불일듯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신성한 호흡을 들이마시며 하나님의 요소를 더욱 받아들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며 그분의 요소로 우리에게 주입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딤후 3:16-17 각주,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번, 추천 찬송 #588 (주께 가까이 와), #581(하나님 말씀과 형상인 주)*

빛 비춤과 적용 :
